

“금타 매각, 산은 관계자 조사하겠다”

국민의당, 광주공장 방문해 노사 면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정부 원점서 살펴야 “국내 생산라인 없어지고 지역경제 치명타” 문 대통령도 “국익차원 신중히 매각” 밝혀

국민의당은 21일 “정부가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이 국내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못하게 하면서 중국만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와 잇따라 면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사 측과 면담을 갖고 “정부

가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한국과 중국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에 대해 산업은행이 체권단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산업은행이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은행이 국내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못하게 하면서 중국에만 허용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가”며 “산업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면담에서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매출 중 국내 주문이 40%인데 더블스타가 인수하게 되면 그 부분을 영위할 수 없다”며 “더블스타가 고용보장을 해준대도 고객이 안 쓰는 데 무슨 수로 회사를 유지하겠는가. 광주나 곡성공장 주문(오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상표권 문제 및 노조의 협의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와 동반 성장하기보다는 금호타이어의 연구 기술과 글로벌 체널, 미국공장을 빼가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받고 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블스타 인수 문제로 해외 오더가 다 끊겼지만, 기술력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회사다. 노사가 반성하고 잘하면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대 노조 대표 지회장은 “노조가 바

라는 것은 호남 기업으로서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라며 “박삼구가 아닌 금호타이어 살리기가 조합의 목표다. 고용보장과 국내 공장 정상화 방안 제시 없이는 누구든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각의 타당성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근거, 경영계획서 등을 산업은행에 요구했으나 기밀유지약정을 근거로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더블스타가 인수비용 9,000억원 중 2,000억원을 마련하고 7,000억원대 자금을 차입하는데 결국 합병해서 금호타이어에 인수 부채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지난 3월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며 국내공장의 고용유지가 매각 조건이 돼야 한다”며 “체권단은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미애 기자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성희롱 등 4개분야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우정청,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건전한 성 의식 확립·공직자 역할 강조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성희롱 등 4개분야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 확립과 성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폭력예방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장남 강사는 폭력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대응방법에 대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폭력사태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철 전남우정청장은 “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한다”며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평등한 성문화를 바탕으로 폭력예방 주체자로서의 실천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진흥원, 글로벌게임센터 사업설명회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장철)이 운영하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기업지원 사업설명회가 22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추진하는 ▲전남 글로벌 게임산업 환경 조성 ▲스타게임 육성 프로젝트 ▲지역 게임 생태계 유대카 프로젝트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등 총 4개 부문 9개 단위의 기업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쉽게 설명해 관련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진흥원은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

해 체험형 게임 특화 사업모델과 국내·외 수요시장을 발굴하고 전문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게임산업계 전반의 성장정체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 가능한 융합형 게임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를 참조하거나 차세대콘텐츠팀(061-339-6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나주혁신도시에 정식 개소했다.

/황애란 기자

지역 예비창업자 맞춤형 지원한다

광주전남중기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식 6기 21명 선정...창업이론·점포운영 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6기로 선발된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입

학생 중 백종일씨(64)는 최고령 합격자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천연가습기 제작·판매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3년내 폐업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급증, 이에 중기청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예비)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

해 총 5개월에 걸쳐 운영하는 창업전문 교육과정으로 이론 교육과 체험 점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6기는 오는 7월 21일까지 컨설턴트·노무사 등 전문가와 성공한 선배 창업자 등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이론 교육을 받고 수료한 뒤 16주간 체험점포에 입점해 실제 점포를 경영, 진열부터 판매 전략, 고객 관리 등의 경영노하우를 갖게 된다.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중 창업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험점포 운영결과·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우수 졸업생으로 뽑히면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이상)도 지원받는다.

실제 앞서 3기로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장찬미씨(35)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웰빙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진형 지방중기청장은 “이번에 입학한 6기가 졸업 후에도 상권정보 제공, 자금, 보충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꼭 창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호남권 해외 개척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85건 상담 진행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지역회장 임경준)는 21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내수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호남권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중기중앙회의 내수기업 수출기회와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12개사와 광주·전남·전북지역 수출소

보기업 30개사가 참여해 85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참여기업의 주요업종은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기계·자동차부품 분야까지 다양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해외 대응전략으로 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 우수한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유지 등의 업무를 각 지원기관별로 분담하고 연계 추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글로벌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GMD를 통한 수출지원 사업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초보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준비부터 해외영업, 수출계약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GMD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2030 직장인 60% “입사 1년내 조기퇴사”

업무 적합성·낮은 연봉·야근 등 원인

2030세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입사 후 1년 내 조기퇴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30 직장인 579명을 상대로 조기퇴사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퇴사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97.8%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실제 조기퇴사로 이어진 비율은 그보다는 크게 낮았다.

조기 퇴사자 가운데 70.7%는 퇴사 후 새 회사에 입사했지만 22.8%는 휴직을 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기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인의 54.9%는 새로 옮긴 회사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만족한

다’는 답이 29.3%로 그다음이었으며, ‘불만족한다’는 사람도 15.8%나 됐다.

조기퇴사한 직장인들이 회사에 밝힌 퇴사 이유와 실제 사유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직장인들은 퇴사 이유로 회사에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33.4%·복수응답), ‘낮은 연봉 수준’(30.3%), ‘야근·초과근무가 많다’(26.4%) 등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퇴사 이유로는 ‘낮은 연봉 수준’(36.8%), ‘상사·동료와의 갈등’(3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회사에 밝힌 퇴사 이유에서 1위를 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는 실제 퇴사 사유에선 4위(19.4%)에 그쳤다.

/연합뉴스

지역 청년 취업능력 제고 협력

광주창조센터-지역대학 약정 체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가 지역 대학들과 하반기 취업시즌을 대비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청년취업(UP)프로그램’ 사업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취업(UP)프로그램 사업은 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졸업반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취업마인드 제고 등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센터의 예산 지원 아래 광주대·직무별 기업탐방 및 취업역량UP 자격증 프로그램, 광주여대 ‘지역대학 연합 취업 캠프’ 등 2개 과정 총 100명 이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대학들과 하반기 취업시즌을 대비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청년취업프로그램’ 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입지를 바라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갑속육 어려워지는

청년미취업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제5회 신안천일염 전국대학생바둑대회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승단과 승급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 ▶ 일시 : 2017년 7월 21일(금) ~ 22일(토)
- ▶ 장소 : 신안군 비금 이세돌 바둑기념관
- ▶ 접수기간 : 2017년 5월 25일(목) ~ 6월 30일(금)
- ▶ 참가자격 : 전국대학재학생
- ▶ 참가부문 : 최강부(5단이상), 유단자부(1~4단), 고급부(1~3급), 중급부(3급이하)
- ▶ 접수 및 문의처 : 062) 652-2832, 010-3647-2833

